

유물·영상·미술로 제주 해녀의 삶 살펴보기

-공기통이나 호흡기 같은 특별한 장비 없이 바다에 들어간 해녀들은 물질을 하다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그제야 물 밖으로 나와 가쁜 숨을 천천히 내뿜는다.

‘호오이, 호오이~’ 해녀들의 숨비 소리다.

이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해녀들이 토해내는 경이로운 생명의 소리이자 제주해녀문화의 상징 중 하나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오는 8일부터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제주해녀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등재 직후 이뤄지는 최초의 기념행사로 인류의 무형유산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 국립무형유산원, 오늘부터 특별전 고서·잡지 등 아카이브 전시 통해 해녀들의 역사·문화 한눈에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제주해녀의 역사,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 도구, 물의 일과 살림, 제주 해녀의 신앙, 예술로 화한 해녀의 삶, 해녀공동체, 출가해녀와 해녀노래 등 100여 점에 이르는 유물과 미술작품, 다양한 영상과 체험품을 전시한다.

전시는 제주 해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고서적과 근대기에 발간된 신문·잡지 등에 대한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 제주해녀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고서에는 유배로 제주도에서 머물렀던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 팔다리틀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물질작업을 하는 해녀의 모습은 놀라움으로 다가왔으며,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된 작업과정과 관가의 수탈 등은 안타까움의

대상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일제강점기 발행된 신문과 잡지는 뛰어난 잠수 기술과 강인함을 지닌 제주해녀가 부산과 울산,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진출하면서 조선의 종대한 산업 현상으로 주목 받았음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제주도 해녀박물관에서 공수 해운 해녀의 물질을 위한 의복과 도구 80여점에선 해녀의 삶과 일상이 묻어났다. 제주 해녀들이 물질할 때 전통적으로 입었던 속옷에서 발전한 ‘소중이’의 다양한 모습과 70년대 이후부터 인기 시작한 고무 옷 등을 통해 물옷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물질을 위한 핵심도구인 테왁망사리와 해산물 채취를 위한 빗창 등 단순한 도구들은 자연친화적인 작업과정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외에 애기구

덕과 물항아리, 물구덕 등의 살림살이는 바다의 물질뿐 아니라 밭일과 집안 살림을 동시에 수행하며 소박하게 살아온 제주해녀들의 삶을 드러낸다.

이번에 특별전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재현한 전시공간을 통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물질작업의 특성에서 기인한 해녀의 신앙을 조명했으며, 하도리 어촌계의 수십 년에 걸친 다양한 문서들을 통해 해녀공동체의 특성을 소개했다.

전시기간에는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영화 <인어공주(2004, 박홍식) 물숨(2016, 고희영) 계춘할망(2016, 창감독) 등도 상영한다.

“전시는 2017년 3월 31일까지. 문의는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063)280-1471, 1458. /정해은 기자



최명표 평론가, 아름다운문학상 전재욱 시인, 은글문학상 수상



최명표 평론가 전재욱 시인

전주 은글문학회(회장 백봉기)는 ‘제5회 아름다운문학상’과 ‘제8회 은글문학상’ 수상자로 최명표(56) 평론가와 전재욱(75) 시인을 선정했다.

아름다운문학상을 수상한 최명표 평론가는 전북대학교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계간 <문예연구> 편집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균형각각의 비평>과 <한국현대아동문학연구> 등의 저서를 발간했다.

은글문학상을 수상한 전재욱 시인은 공무원 문예대전에 입상한 뒤 <한백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민들레꽃>을 발간했고 현재는 전북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은글문학회는 격조 있는 작품 활동과 품위 있는 삶으로 남의 귀감이 되는 작가에게 이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8일 오후 4시 전주 초원갈비 연회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이근배 시인의 특별초청문학강연 ‘은글문학의 밤’도 함께 진행된다.

“문의: 은글문학회장 010-8977-6142. /정해은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증자 감사 특별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올 한해 100만명 방문을 가능토록 해 준 시민과 기증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아름다운 공유, 군산이야기’ 기증자 특별전을 이달부터 3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개관 5년 만에 2만7000여 점의 유물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준 시민과 기증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기증유물들로 이뤄졌으며 ‘기증자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명단과 사진을 함께 전시한다.

전시회 1부 ‘군산, 群山, GUNSAN 이야기’에서는 군산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문종과 연구자들이 기증한 16세기 최호장군 교지, 19세기 제주고서 산문서 등의 유물을 소개한다.

2부 ‘군산의 아프고 아픈 이야기’라는 주제로 개항 이후 광복 전까지 사용되었던 일제강점기의 유물과 화교 유물, 독립운동가의 유물을 소개하며, 3부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누구보다 힘들었지만 행복을 꿈꾸었던 서민들의 생활사 관련 유물을 소개한다.

4부 ‘나의 이야기, 군산의 역사’라는 주제로 개인의 기록유물을 통해 군산의 근현대사를 소개하며, 5부 ‘박물관을 사랑한 예술가들’이라는 주제로 박물관에 작품을 기증한 예술가와 작품을 소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개관 5년 만에 전국 5대 박물관 선정, 유물 2만7000여 점 확보, 2016년 한해 100만명 방문을 가능하게 만든 시민과 기증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시민과 함께 만든 박물관이라는 점을 알리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2011년 9월 개관해 지난해 81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매년 30여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국 5대박물관에 선정됐으며, 박물관 인근의 7개 건물이 테마단지로 되면서 전국적인 가족단위 체험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북영화연구회, 창립 3주년 맞아 독일영화제 마련

내일부터 5일간 영화 상영

전북영화연구회(회장 장세균)는 창립 3주년을 맞아 독일영화제를 마련한다.

이번 영화제는 독일 작가의 감독으로 유명한 시네마 마운트인 앞장선 빈 벤더스 감독의 독일영화로 유명한 ‘베를린 천사의 시’ 포스터, 텍사스’를 비롯해 9편의 작품을 무료 상영한다. 영화는 7일~11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성지빌딩 4층에서 볼 수 있다.

1984년 ‘파리, 텍사스’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빈 벤더스 감독은 로비 필러의 아름다운 영상과 라이카카메라의 영화음악으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어 1987년에는 ‘베를린 천사의 시’로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다.

영화제에서는 빈 벤더스 감독의 초기 로디 3부작 중 ‘도시의 엘리스’(1973) ‘시간의 흐름’(1976)의 작품을 비롯해 독일에서 미국 영화계로 건너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데니스 호퍼 주연의 ‘미국인 친구’(1977) 등 추억의 영화를 만나 볼 수 있다.

또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1982년 작품 ‘사물의 상태’와 배우이자 극작가인 샘 셰퍼드와 제시카 랭 부부가 주연한 ‘돈 킵 노킹’(2006), 초기작품 하나인 ‘주홍글씨’(1973)와 90년대 작품인 ‘빛의 속인수’(1975) 등도 관객을 찾는다.

독일영화제 추진위원장 백학기(시인·영화인) 감독은 “인간 본연의 짙은 고독한 정서와 정교한 연출 등으로 현대 독일영화의 대표감독인 빈 벤더스 영화 등을 통해 이전 극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새로운 영화적 정서의 감동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는 매일 오후 2시와 4시 2회, 토요일인 10일은 오후 1시, 3시, 5시 3회에 걸쳐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



독일영화로 유명한 ‘베를린 천사의 시’ 포스터.

▶쥐띠 48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투자는 피하라. 6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7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84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성사가 가능하다.	▶소띠 49년생: 매사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때. 61년생: 이성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니 구설이 따르니 언행에 주의하라. 73년생: 의욕은 앞서나 결과물은 빨리 얻지 못한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는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급성질환을 주의하고 평소 애만 짚힐도 조심해야 하는 운. 62년생: 다른 사람의 덕은 보기 어렵다. 74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식사 시간을 활용할 것. 좋은 결과가 있다. 86년생: 타인으로부터 신경 쓸 일이 생긴다.	▶토끼띠 51년생: 타인과 화합하기에 좋은 운이다. 다투었던 사람과의 화해에도 긍정적 결과가 있으니 용기를 내보라. 63년생: 근친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기는 운. 75년생: 처음에는 구설이나 후방에는 화합이다. 87년생: 고집은 금물, 한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실패는 없다.
▶용띠 52년생: 타인과의 불화, 시비, 구설이 예상되니 모임은 자제하고 언행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64년생: 매사 처리해야 하는 일은 일찍 움직여야 성사 된다. 76년생: 동기감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는 운. 88년생: 겉은 화려한 듯 하나 실속이 없는 일에 휘말릴 수 있다.	▶뱀띠 53년생: 금전운이 들어왔으니 작은 일은 성공한다. 조심스럽게 추진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다. 65년생: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때. 77년생: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운.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적 소모는 많고 얻는 결과는 적다.	▶말띠 54년생: 평소 애 베풀던 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이다. 66년생: 손재주가 따르니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운. 78년생: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 90년생: 원행은 심기하는 것이 좋다. 뜻하지 않은 행력으로 근심이 생긴다.	▶양띠 55년생: 가벼운 말이 무거운 벌로 돌아오는 때. 자나 깨나 말조심해야 하는 운. 67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다면 실망이 크다. 79년생: 배우는 사람에게서 큰 발전이 있는 운. 91년생: 처음은 좋으나 끝은 불길하다.
▶원숭이띠 56년생: 평소 애 받았던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순간의 감정으로 대처하지 마라. 68년생: 해야 할 일은 타인에게 미루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80년생: 다치거나 아플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집중력이 필요한 일은 바람직 하지 않으니 미루는 것이 좋겠다.	▶닭띠 57년생: 평소 애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69년생: 문서를 주고받음에 있어 좋은 운이다. 81년생: 타인과 화합이 잘 되고 결과가 좋은 운. 93년생: 남자라면 여자의 도움을 여리하면, 연정자의 도움을 받는다.	▶개띠 46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고 자중하며 내일을 다지는 것이 좋은 때. 58년생: 이렇듯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다. 7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돼지띠 47년생: 외부는 평탄한 듯하나 내적으로는 불안하니 큰일은 도모하지 마라. 59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얻게 된다. 71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된다. 83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는 좋지 않다.